

## 종합국어대사전 편찬 사업

강 인 선  
(국립국어연구원 연구관)

### 1. 머리말

언어는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여 주는 징표이다. 흔히 드는 예로 만주족과 유태족의 경우가 있다. 만주족은 중국을 지배하여 청나라를 건설하였으나 만주어의 한어 동화를 피하다가 결국 그 언어와 함께 민족마저 소멸하여 버렸다. 반면 세계를 유랑하던 유태 민족은 그 언어를 굳게 지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었다. 우리 민족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일제의 조선어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끝내 우리말을 지켜 온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천여 언어 가운데 잘 정리된 사전을 가진 언어는 그다지 많지 않다. 옛날 중국의 사전이나, 영국의 옥스포드 사전, 프랑스의 라루스 사전, 독일의 그림 사전, 미국의 웹스터 사전, 일본의 소학관 사전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이전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언어와 국민 정신을 연계하여 국가 주도의 언어 연구와 사전 편찬 사업을 수행하였다. 북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일본 등 자국어의 대사전을 만드는 작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소위 문화 선진국들의 일이나, 우리도 이제 우리의 문화 수준에 걸맞는 한국어 사전을 갖춤으로써 문화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때가 온 것이다.

『종합국어대사전』(가칭)의 편찬 발간은 현재 국립국어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연구 사업들 가운데 그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다. 사업 기간이나 소요 예산으로도 그렇고 동

#### 4 새국어생활 제5권 제1호('95년 봄)

원되고 있는 인원으로 보아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사업 자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그러하다. 이 사전의 편찬 목적과 사업 추진의 경위, 그리고 지금까지의 실적과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2. 편찬 계획의 개요와 추진 경과

#### 2.1. 편찬의 목적과 방향

새 사전은 표준 현대어는 물론 북한이나 해외 동포의 언어까지를 포함한 방언적 변이와 역사적 변천을 균형 있게 반영하되, 표제어·뜻풀이·용례 등 모든 부문에서 현행 어문 규정을 정확히 지킴으로써, 표준적이면서도 폭넓은 국어 생활의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연구원이 설정하고 있는 “종합국어대사전” 편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국민 언어 생활의 표준 제공
- (2) 한민족의 언어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토대 마련
- (3) 오천 년 문화 민족의 자긍심 고취

지금까지 개인이나 민간에서 발행한 국어 대사전으로는 “새우리말큰사전”(삼성출판사, 1989), “국어대사전”(금성출판사, 1991),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 1992), “국어대사전”(민중서림, 1994) 등이 있다. 그러나 수록 어휘의 불균형이나 뜻풀이의 부정확은 차치하더라도,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의 규범을 따르지 않았거나 서로 다르게 적용한 것이 많아 국민의 언어 생활에 적잖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물/수돗물, 무우/무, 한국/한:국, 짜장면/자장면/자장면 등 예를 얼마든지 들 수 있다. 새 사전은 이들에 대하여 표준적인 표기법이나 발음법을 제시하고 여기에 국가적 권위를 실고자 한다. 이것이 위에서 말한 편찬 목적 (1)의 뜻이다. 특히 교육계와 출판계에서 그러한 요구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산업과 문화의 각 부문에서 표준화를 지향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적 요청인 것이다. 그리고, 이미 사정된 표준어 목록에도 아직 보완되어야 할 미비점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사전들의 차이와 한계를 극복하고 일반 원칙만을 정하고 있는 현행 어문 규범을 표준적인 국어 사전을 통하여 구체화하는 일은 국가 기관인 국립국어연구원만이 수행해 낼 수 있는 과업이다.

통일에 대비해야 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새 사전은 이미 심각한 현실이 되어 있는 남북한의 언어적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배려를 담은 것이어야 한다. 북한은 1964년 이후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의 기관지인 “조선어문”과 “문화어학습” 및 정무원 직속 국

어사정위원회의 “조선말규범집”(1966/1988) 등을 통해 독자적 어문 규범을 수립 보급하는 한편, “현대조선말사전”(1968) “조선문화어사전”(1973) “현대조선말사전”(제2판, 1981) “조선말대사전”(1992)을 속속 발간하여 이른바 문화어의 생활화에 박차를 가하여 왔다. 통일 한국이 맞게 될 언어적 혼란은 단기적으로는 통일을 주도한 남북 어느 한 쪽의 규범을 중심으로 수습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갈등과 개정을 거치면서 점차 합리적인 규범으로 정착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상되는 당장의 혼란에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통일 대비 사전의 편찬은 통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를 통일 이후로 미룬다면 그로부터 다시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실제 착수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그보다 훨씬 긴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언어적 혼란도 그만큼 장기화할 것이다. 새 사전이 통일 대비 사전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편찬 목적 (2)의 뜻이 여기에 있다. 남북을 대표하는 기관이나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먼저 규범을 통일하고 이 통일된 규범에 따라 사전을 만들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으나, 그것이 어렵다면 우선은 남북이 각각의 통일 대비 사전을 만들어 두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 새 사전은 표준 현대어 외에도 방언은 물론 북한어나 해외 동포의 언어까지를 고루 수록하되, 우리의 규범을 참조하게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그것은 북한 규범에 익숙한 구소련이나 중국의 동포들에게 우리 규범 학습의 지침서가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최소의 수정 보완으로 통일 한국의 표준적인 사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목적 (1)이 말하는 한국어의 표준을 단지 우리 남한만의 것이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 것이 되게 하고자 한다.

국가 표준의 제시와 함께, 새 사전에 대한 일반의 요구는 매우 다양하고 사용자의 계층에 따라 그 바라는 방향이 다르다. 외국인 학습자를 포함한 일반인들은 다의적 표제어들에 대한 엄밀한 뜻 구분과 그에 상응하는 풍부한 용례의 제공을 요구하고, 여기에 역사적 변천을 반영하는 용례가 함께 제공되기를 바라는 국어학계의 요구도 있다. 문필에 종사하는 학자나 문인들은 정확한 어원 제시에 각별한 기대를 보인다. 그리고 특히 행정 부서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전문어의 폭넓은 수록을 요구하는 이가 많다. 새 사전은 이 다양한 요구들을 균형 있게 반영함으로써 편찬 목적 (3)을 달성하고자 한다. 새 사전에는 50만여 항목의 표제어가 수록될 예정이고, 각 표제어에는 다음의 정보들이 순서대로 기술될 것이다. 표제어, 원어, 발음, 품사, 북한어·방언·옛말 표시, 전문어 영역 표시, 활용 정보, 문형 정보와 기타 문법 정보를 결들인 뜻풀이, 용례, 용법상의 주의 사항, 관련 어휘, 참고 어휘, 어원, 관련 부표제어, 관용구, 속담 등.

사실, 모든 면에서 만족할 만한 사전의 편찬이란 애초부터 달성할 수 없는 목표에 속

## 6 새국어생활 제5권 제1호('95년 봄)

한다. 『중합국어대사전』의 편찬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된다 하더라도, 이 역시 완전한 사전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 생활 환경의 변화와 함께 언어 역시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 또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사용자 각계 각층의 필요에 부응할 관련 사전의 추가 제작 또한 불가피한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과제를 국가 기관이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현재 국립국어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중합국어대사전』의 편찬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근거한 것이다.

### 2.2. 사전 편찬의 기구

『중합국어대사전』의 편찬 발간은 국립국어연구원이 주관하고 있으나, 사업 규모가 워낙 방대하여 연구원 단독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연구원이 속한 문화체육부의 지원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 학계 및 민간 단체의 협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한 원내외의 지원과 협력을 다음과 같이 조직·관리하고 있다.

- (1) 사전편찬추진위원회
- (2) 사전편찬실
- (3) 분과별 자문위원회
- (4) 원외 집필진

사전편찬추진위원회는 사전 편찬의 방향과 사업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 및 현안 문제를 협의 결정하는 기구이다. 당연직 3인과 10인 내외의 학계 원로로 구성된다. 사업 첫해인 1992년 4월에 발족하였으며, 해마다 2~4회 회의를 가진다. 문화체육부 차관(위원장), 문화정책국장, 국립국어연구원장이 당연직 위원이고, '95년의 임명직 위원은 다음 9인이다. 강신항(성균관대), 김석득(연세대), 김완진(서울대), 성백인(서울대), 안병희(서울대), 이기문(서울대), 이용주(서울대), 정명환(성심여대), 정연찬(서강대).

사전편찬실은 원내에 설치된 임시 부서로, 연구 각 부 소속의 정규직 연구원(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별정직 4~5급)과 계약직 편수원(대학원 수료 이상) 및 편수보조원(대졸, 고졸)으로 구성되고, 어문규범연구부장의 지휘하에 사전 편찬의 실무를 담당한다. '92년에는 카드 작업, 입력과 교정을 담당하는 보조원 외에, 14명의 당시 원내 연구원 전원이 편수원 5명과 함께 7개의 분과 연구조(총괄 분과, 표제어 분과, 어휘 조사 수집 분과, 어원·옛말·이두 및 방언 분과, 북한어·해의 동포 언어 분과, 뜻풀이·용례 분과, 전문어 분과)로 나누어 작업하였고, '93년부터는 전담 연구원을 편찬실에 배

치하고 있다. 편찬실의 내부 조직도 편찬 작업의 진행에 맞추어 개편하고 있다. '93~'94년에는 4개의 분과(총괄 분과, 표제어 분과, 뜻풀이 분과, 자료 분과)를 두었으나, 올해부터는 일반어와 전문어의 두 분과만을 두어 사전 원고의 집필 의뢰, 접수, 교열 및 이를 지원하는 일에 인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95년 2월 현재의 편찬실 인원은 모두 54명(정규직 9명, 계약직 45명)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 총괄 : 강인선(실장, 어문규범연구부 4급 상당)
- 지원 : 권인한(행정, 어문실태연구부 학예연구사), 조남호(전산, 어문규범연구부 학예연구사), 정희원(연구, 어문실태연구부 학예연구사), 편수원 2명, 입력보조원 6명, 편수보조원 4명
- 일반어 분과 : 김세중(집필, 어문실태연구부 5급 상당), 정호성(용례, 어문실태연구부 학예연구사), 임동훈(교열, 어문자료연구부 학예연구사), 편수원 12명, 편수보조원 10명
- 전문어 분과 : 이현우(집필, 어문자료연구부 5급 상당), 양명희(교열, 어문규범연구부 학예연구사), 편수원 5명, 편수보조원 6명

분과별 자문위원회는 주로 사업 첫해인 '92년에 구성·운용되었다. 당시 편찬실의 7개 연구조 가운데 총괄 분과를 제외한 6개 분과에 각각 3~4명의 중진 학자들을 위원으로 하여 모두 15회의 회의를 열고 사전 편찬의 제반 문제와 『종합국어대사전』 편찬 계획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와 자문을 받았다. '93년부터는 편찬실의 내부 조직이 바뀌고 원내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되면서 필요에 따라 '사전 편찬 실무자 초청 자문회의('92, '93)', '집필 지침 및 300단어집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93)' 등 별도의 자문회의를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가지고 있으며, 후술할 단위 과제 연구가 구체화될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자문회의도 과제별로 재편성되고 활성화될 전망이다.

사전 원고는 원외 집필과 원내 교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원외 교열도 병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새 사전의 편찬에 국어학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는 취지도 있다. '94년에는 원고료 예산의 부족으로 일반어 집필만을 원외에 의뢰하고 전문어는 원내의 연구원과 편수원이 집필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모두 원외에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원외 집필진을 '94년에는 전문 집필위원과 일반 집필위원으로 구분하였다. 전문 집필위원으로는 각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소장학자들 가운데 매달 일정한 양의 원고를 지속적으로 써 줄 분들을 선정하여 모두 40명에게 집필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일반 집필위원으로는 전국 각 대학에 재직 중인 49명의 현직 교수에게 방학 기간 등을 이용하여 집필할 수 있도록 의뢰하였다. 올해

## 8 새국어생활 제5권 제1호('95년 봄)

에는 전문어의 집필 의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전문 집필위원은 전문어 집필위원으로, 일반 집필위원은 일반어 집필위원으로 점차 전환해 나갈 것이다. '95년 2월 현재의 원외 집필진은 모두 122명(일반어 102명, 전문어 20명)이고, 앞으로 20명 정도를 더 보강하여 80명 정도의 일반어 집필진과 60명 정도의 전문어 집필진을 운용할 계획이다.

### 2.3. 사업 추진의 경과

새 사전의 편찬 발간이 처음 기획된 것은 1991년의 연구원 개원을 두 달 남짓 지나서였다. 이 해 3월에 연구원은 당시 문화부 장관의 격려에 힘입어 소요 예산 100억 원에 편찬 기간 10개년(2001년 발간)의 『통일대비 종합국어대사전』 편찬 발간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7월에는 재정경제원(당시 경제기획원)이 이를 '92년부터의 신규 사업으로 인정하여 제1차년도 예산으로 1억 7천 2백만 원을 배정하였다.

'92년 3월 연구원이 청사를 운니동(구 덕성여대 자리)에서 장충동(구 국악고등학교)으로 옮기면서 새 사전 편찬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4월에는 이 해의 사업 계획과 함께 사전편찬추진위원회 구성 및 편수원 채용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원내에 사전편찬실을 설치하여 연구직 14명 전원과 임시직 편수원 5명으로 7개의 분과 연구구조를 구성하여 업무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편찬실 직계의 불안정, 편수 인력의 부족, 불충분한 대우, 신분 보장의 미비, 예산 지원 부족 등으로 첫해의 사업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한 사정은 '93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사전의 편찬을 위하여는 일정한 시간과 함께 풍부하고도 유능한 인력과 원활한 재정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어느 하나도 보장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정부의 예산 동결 방침으로 전년과 같은 1억 7천 2백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이는 요구 예산의 7분의 1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사업을 계속 이같이 추진한다면 적어도 5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리라는 계산이 나왔고, 사전편찬추진위원회에서는 편수 인력의 자세도 흐트러져 일관된 편찬 작업을 기대할 수 없으리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연구원이 선택한 타개책은 편찬 기간을 줄여 단기간의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정부 예산 사업으로 10개년은 예가 드문 장기 계획이라서 애초부터 원활한 지원을 얻어내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 두 해 동안의 경험에서 얻은 결론이었다. 마침 '93년 봄에는 새로 출범한 정부가 신한국 문화 창달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꾀하는 중이었고, 이에 연구원은 새 사전의 편찬을 '93년 기준의 향후 5개년 사업으로 수정하여 문화체육부의 "새 문화 체육 청소년 진흥

5개년 계획”의 문화 부문에 포함시키기에 이르렀다. '92년을 기준으로 하면 6개년 사업이 된 셈이고, 발간 연도는 2001년에서 1997년으로 4년 앞당겨진 것이다. 수정 계획의 사업 기간과 소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기간 : 1992 ~ 1997년(6개년)

	기간 단축 후	기간 단축 전
1단계 (준비)	'92~'93년 (2년)	'92~'94년 (3년)
2단계 (집필 및 교열)	'94~'96년 (3년)	'95~'98년 (4년)
3단계 (편집 및 발간)	'97년 (1년)	'99~2001년 (3년)

(2) 소요 예산 : 100억 원

'92 ~ '94년 (집행)	18억 8천 8백만 원
'95 (집행 중)	19억 6백만 원
'96 ~ '97년 (소요)	62억 6백만 원

'94년 이후의 비교적 원활해진 재정 지원은 이 편찬 계획의 수정과 그 과정에서 얻어낸 정부 부처 간(특히 문화체육부와 재정경제원)의 이해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담도 결코 만만치는 않다.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편찬 기간의 단축은 한편으로는 단기간의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하여 사업 수행의 추진력을 높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수 편수 인력의 중도 이탈을 방지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원이 스스로 택한 고육지책이었다. 결국 시간을 반납한 대신 돈을 얻은 셈이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6개년의 사업 기간이란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 아닐 수 없다. 재정 지원은 한결 원활해 졌으나, 이로써 일시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에는 한계가 있고, 협소한 작업 공간과 빈번한 청사 이동은 계속 아까운 시간을 앗아 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편찬 작업은 가위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편찬 작업의 모든 과정을 가능한 한 전산화하고, 학계의 역량을 총동원하며, 사전의 편찬 경험이 있는 민간 단체와의 자료 교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간 단축으로 잃은 시간을 일부나마 만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후술할 민간 출판사와의 출판 계약에 의한 상업 출판이 실현되면 상당한 시간과 인력 및 예산 소요를 절감해 줄 것이 기대된다. 사업 초기의 재정 지원 부진 속에 지나간 두 해는 이미 복구할 수 없는 과거의 시간이 되어 버렸으나, 미진했던 준비 단계의 작업들은 현재의 집필 및 교열 단계에서도 단위 과제 연구의 형태로 병행 추진하고 있다.

### 3. 사업 추진의 실적 및 현황

#### 3.1. 기존 사전의 분석

새 사전 편찬을 준비하는 단계의 첫 과제는 기존 사전의 분석을 위한 표제어별 카드 만들기과 비교 검토 카드의 작성이었다. 표제어별 카드 만들기는 기존 대사전을 표제어별로 카드에 오려붙이는 작업으로, 남한의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 1992), “국어대사전”(금성출판사, 1991), “국어대사전”(민중서림, 1994), “새우리말큰사전”(삼성출판사, 1974)과 북한의 “현대조선말사전”(제2판, 1981) “조선말대사전”(1992) 등 6개 사전이 대상이었다. '92년 4월에 시작하여 '94년 4월까지 모두 62만 5천여 장의 카드를 만들었고 각 사전의 표제어는 작업 진행에 따라 추가로 입력되었다. 이 카드들은 현재 97개의 4단 캐비닛에 넣어 관리하고, 복사한 카드를 원고 집필과 교열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다만, 사업 초기에 컴퓨터가 충분히 지원되었더라면, 6개 사전을 전문 입력하여 자료로 활용하였을 것이어서, 오려붙이기와 같은 원시적인 작업은 하지 않아 캐비닛들이 비좁은 편찬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비교 검토 카드의 작성은 이미 만들어진 카드를 관련된 것끼리 비교하면서, 6개 사전의 등재 여부, 항목의 크기나 어휘 범주 등 앞으로의 표제어 선정 및 집필 의뢰에 참고될 만한 사항을 정리하여, 사전의 종합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리하는 일이다. '93년 1월에 시작하여 '94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이 작업의 결과를 입력하여 기존 사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 총 표제어 수가 631,445 항목으로 늘어났다. 한편 이것을 기초로 표제어 선정을 하여 왔으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올해 말에나 완료될 전망이다. 작년까지 이러한 표제어 비교 검토 카드 작성, 표제어 선정 작업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병행하여 온 표제어 분과의 주요 과제였으나, 올해부터는 단위 과제(표준)의 하나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비교 검토 카드를 작성하면서 특히 관심을 둔 것은 기존 사전들이 표기에서 차이를 드러낸 표제어, 복합어인지 구(句)인지 판정이 어려운 표제어 등을 추출하는 일이었다. 이들은 문제 표제어로 분류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 3.2. 사전 편찬 관련 연구 및 회의

편찬의 방향 설정과 세부 지침을 얻기 위하여는 기존 사전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는 외에도 국어학계를 비롯한 국내외의 사전 관련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한 자리에 모아



볼 필요가 있었다. '92년과 '93년에 각각 1회씩의 사전 관련 국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는데, 그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동양 삼국의 사전 편찬에 관한 국제 학술 회의('92)
  - 국어 사전의 어원 표시에 대하여 (이기문, 서울대)
  - 동사 '먹다'의 사전적 처리를 위한 몇 가지 논의 (홍재성, 서울대)
  - 중국 조선어 규범 사전에서의 표제어의 수록 원칙과 표제어의 성격 (김기중, 연변 사회과학원)
  - 외국인 편찬 한국어 대역 사전의 현황과 문제점 (간노 히로오미, 일본 동경외국어대)
  - '現代漢語詞典'과 '現代漢語大詞典' (單耀海, 중국 사회과학원 어언연구소)
  - 方言과 詞典 편찬 (賀巍, 중국 사회과학원 어언연구소)
  - 日本語의 辭典 (미야지마 다츠오, 일본 오사카대)
- (2) 북한의 국어 사전에 관한 국제 학술 회의('93)
  - 사전의 역할에 대하여 (오에 다카오, 일본 동경외국어대)
  - '조선말대사전' (1992)의 성격 (송천식, 연변 사회과학원)
  - 북한 사전의 음운 정보 (권인한, 국립국어연구원)
  - '조선말대사전' (1992)과 문법 정보 (남기심, 연세대)
  - 북한 사전의 뜻풀이 (임홍빈, 서울대)
  - 북한의 방언과 국어 사전 (Ross King, 영국 런던대)

주제에 따라서는 별도의 조사 연구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었다. 원내의 일반 연구 사업 가운데에도 앞으로 사전 편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리 대상과 범위가 정해진 것이 많다. '신소설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93), '기본 외래어 조사 자료집' ('93), '현대 국어의 약어 목록' ('94), '신어의 조사 연구' ('94),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 ('92, '93, '94) 등.

또한, 원내의 연구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주제들은 원외 용역으로 이루어졌다. "국어 사전 편찬을 위한 자료 대상 및 어휘 수집에 관한 연구" ('92, 이현희[서울대] 외 2인), "문자열 검색·사전 검색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 ('92, 한글과 컴퓨터사), "국어 사전에서의 파생어 처리에 관한 연구" ('93, 송철의[단국대] 외 1인), "국어 어휘 분류 목록에 대한 연구" ('93, 임홍빈[서울대] 외 1인), "15세기 한자어 조사 연구" ('93, 홍운표[단국대] 외 1인), "국어 사전의 합성어 처리에 관한 연구" ('93, 김광해[강릉대] 외

1인) 등.

### 3.3. 편찬 및 집필 지침의 작성

'93년 2월부터는 사전 원고의 시험 집필에 들어 갔다. 새 사전의 편찬 및 집필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 해 7월에 발행(300부)한 『종합국어대사전』(가칭) 시험 집필 300 단어집'은 그 동안에 시험 집필된 300여 항목의 원고를 '집필 지침(시안, 부록1)'과 '뜻풀이 유형과 용어(시안, 부록2)' 및 일반적 사전 체제에 맞추어 정리한 것이다. 이 단어집의 부록에 실린 지침(시안)들은 2차례의 자문 회의와 원내 및 사전편찬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편찬실 내부 회의를 통한 수정과 보완을 거듭한 끝에 『종합국어대사전』 집필 지침('94. 3. '94. 8. 각 150부 발행)으로 확정되었고, '94년 4월부터 9차례의 설명회를 통하여 일반어 집필자 교육에 이용되고 있다. 현재는 전문어 집필을 위한 지침(시안)도 완성 단계에 있으며, 곧 이를 합하여 종합적인 집필 지침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 3.4. 전산 체제의 구축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편찬 작업의 모든 과정을 가능한 한 전산화함으로써 편찬 작업의 능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전편찬실에는 현재 성능이 낮은 286급 4대와 42대의 386·486급의 개인용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까지의 작업은 이들 개인용 컴퓨터에서 수행되어 왔다. '93년에는 금성판 "국어대사전"의 전문을 전산 입력하였고 '94년에는 한글학회의 "우리말큰사전"의 전산 입력 자료를 입수하여 각종 사전 정보의 검색에 활용하고 있다.

새 사전에 제공될 인용 예문과 미등재 표제어를 추출하기 위한 문헌 자료의 전산 입력도 꾸준히 계속하고 있다. 총 6,000만 어절의 구축을 목표로 하여, 이 가운데 5,000만 어절은 원의 용역으로, 북한 문헌 등 원의 용역이 어려운 1,000만 어절은 원내 입력으로 입력한다. '94년에는 약 2,000만 어절을 전국 각 대학의 교수 21인에게 의뢰하여 입력하였다. 올해에는 국어사 문헌, 고전 소설, 현대 문헌(2), 민속 자료, 신문(2), 잡지, 사전 자료(4), 국한 혼용 문헌, 표준어 문헌, 한문 번역 문헌, 한문 번역 자료, 해외 동포 문헌, 전문 분야 입문서, 실용문 자료 등 18개의 분야별 과제로 나누어 모두 1,200만 어절 정도의 자료를 추가로 입력할 예정이다. 여기에 원내 입력 자료를 합하면, 연말까지 약 3,500만 어절 정도가 구축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사전 자료와 문헌 자료의 검색에는 주로 '92년에 개발(용역)된 '문자열·사전 검색 프로그램(HGREP.EXE, HDB.EXE)'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94년 7월에는 국산 주전산기(TICOM SSM7000, 삼성 전자)가 도입되고, '94년 말에는 이를 겨냥한 사전 편찬 지원 프로그램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의 모든 작업은 새로운 전산 체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새 프로그램은 '93년 9월부터 약 1년 반의 기간에 걸쳐 용역(한국 전산업협동조합)으로 개발된 것으로 사전 데이터베이스와 문헌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것이다. 사전 데이터베이스는 새 사전은 물론 기존 사전 입력 자료도 관리하게 된다. 지금은 개인 컴퓨터의 자료를 이 주전산기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 3.5. 단위 과제 연구

새 사전에 수록될 각종 사전 정보를 분야별 과제로 나누어 조사, 연구 및 관리하는 일을 말한다. 그 내용은 '92년도의 6개 분과 연구조가 담당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이를 더욱 세분하고 편찬실 내의 각 연구원이 2~3인의 편수원과 팀을 이루어 한두 과제를씩을 책임지게 하고 있다. 사업 초기('92~'93년)의 예산 부족 및 편찬 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제1 단계(준비)의 미진했던 작업을 제2 단계(집필 및 교열)의 작업과 병행하게 된 데에 따른 보완 조치로, 다음 10과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1) 표 준 :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 순화어 등의 사전적 처리
- (2) 외래어 : 표제어 선정 및 한글 표기, 원어
- (3) 미등재어 : 전산 문헌 자료의 검색을 통한 기존 사전 미등재어 추출
- (4) 북한어 : 북한어 표제어의 선정 및 집필 지침 마련
- (5) 전문어 : 표제어별 영역 조정, 고유 명사 선정
- (6) 문법 정보 : 문법 형태의 선정, 표제어별 활용·품사 정보 관리
- (7) 발음 정보 : 표제어별 발음 정보 관리
- (8) 어원 정보 : 표제어별 어원 정보, 최초 출현 용례, 일본식 한자어의 정리
- (9) 속담·관용구 : 목록 작성, 뜻풀이 정보 관리
- (10) 그림·삽화 : 표제어 선정 및 표본 수집

연말까지 기초적 연구를 완결하여 종합적인 중간 보고서를 내고, 이를 검토하기 위한 과제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용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어심의회 등에 회부하여 사전적 처리 방법을 최종 확정하게 될 것이다.

## 3.6. 사전 원고의 집필 및 교열

'94년부터 4월부터 원고 집필을 시작하여 총 130,550항목의 일반어를 원의 집필진에 의뢰하였고 그 가운데 연말까지 70,158항목을 접수하였다. 당초에는 12만 항목을 집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5만 항목의 집필을 위한 원고료 예산 4억원이 배정됨에 따라 소 항목 중심으로 집필을 시작하였고, 원내 연구원과 편수원을 동원하여 약 9,000항목의 전문어도 집필하여 적어도 집필 항목 수에서는 차질을 줄일 수 있었다.

올해에는 원고료 12억 원이 확보되어, 예산 부족의 우려 없이 본격적인 집필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일반어 10만 항목과 전문어 20만여 항목을 집필 의뢰하여 26만 정도의 원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 밖에 문법 형태와 방언, 고어 및 북한어를 집필하기 위한 별도의 집필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집필자에게는 표제어 목록, 표제어별 카드(복사), 집필 지침, 표제어별 용례 자료 등이 제공된다. 이 가운데 용례 자료는 주로 일반어 집필자를 위한 것이나, 지금까지 제공된 용례 자료는 양도 부족할뿐더러 매우 거칠게 가공된 것이었다. 사업 초기의 예산 부족으로 문헌 자료의 전산화가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처럼, '94년에 연구 용역 등으로 구축된 약 2,300만여 어절의 전산 자료와 주전산기에서 이를 검색할 프로그램이 갖추어졌으므로 올해에는 훨씬 나은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원의의 집필 원고가 접수되기 시작한 '94년 8월에는 뜻풀이분과(지금은 일반어분과) 안에 연구원 1명과 편수원 5명의 교열팀을 구성하였다. 지금까지 약 13,000 항목이 교열되었으나, 아직은 집필자 재교육 및 집필 지침 보완을 위한 표본 교열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표본 교열이 진행되면서 보다 엄격한 원고 관리 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원의 집필 원고는 일단 가접수하여 표본 교열(20%)을 거친 다음 재집필을 지시할 수 있도록 검수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많은 양의 집필 원고가 쌓여 감에 따라 원의 교열진 구성의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어 원고의 영역별 전문가 감수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원의 교열진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최종 교열은 원내 교열팀의 몫으로 되어 있다. 향후 3년의 사업 추진 주요점을 집필('95), 교열('96), 편집('97)에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편찬실의 거의 모든 인력이 교열에 참여하게 된다. 뜻풀이의 교차 확인, 발음 표시, 표제어 배열순 등을 전체 표제어를 대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고, 여기에 단위과제 연구의 결과가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 3.7. 상업 출판의 추진

새 사전의 발간을 민간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한 상업 출판으로 할 가능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92년 4월이었다. 이 해의 사업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당시 문화부 장관의 “편찬은 연구원에서 하되 사전의 제작 보급은 출판사에서 하는 방법을 강구”와 “출판사의 선정은 유력사 중 가장 좋은 지원을 제시하는 방안 검토”라는 친필 지시가 있었다. 그러나 이 때는 아직 편찬 기간을 10년으로 잡고 있어서, 장기 사업에 선뜻 투자할 민간 업체를 찾기 어려워 그 추진은 지지부진하였다. 이 문제가 다시 본격 거론된 것은 지난 1월에 신임 문화체육부 장관이 업무 순시차 연구원에 내방하였을 때이다. 연구원은 새 사전의 저작권을 가지고 출판사는 오직 출판권을 행사하게 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올 하반기에는 출판 계약을 체결할 목표로 출판사의 출판권 보유 기간 등을 포함한 계약 명세와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계획이 성사되면 인쇄·편집·발간 등을 위한 약 20여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편찬 작업의 일부(교열·감수, 전산 출판용 코드 전환 프로그램 개발, 사진·그림 자료의 확보)를 출판사에 맡김으로써, 편찬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도 그만큼 절약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현재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합국어대사전』 편찬 사업의 개요와 추진 현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였으나, 위에서 미처 말하지 못한 두 가지 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새 사전에 대한 일반(특히 행정 부서)의 요구 가운데는 이 사전을 시디롬(CD ROM)을 이용한 전자 사전의 형태로 제작해 달라는 주문도 적지 않았으나, 연구원은 이를 차후의 과제로 미루고 있다. 전자 사전을 위하여는 우선 사전에 수록된 각종 정보의 검색을 지원할 프로그램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며, 거꾸로 모든 사전 정보는 이 프로그램에 맞추어 체계화되어야 하는 바, 현재의 인력과 예산 규모로 이 일까지를 동시에 수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새 사전에 수록될 옛말 자료나 한자 자료에는 현재 일반이 사용하는 전산 체계를 훨씬 벗어나는 코드 영역을 요구한다. 단, 우리는 새 사전에 수록될 각종 정보를 최대한 규격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앞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경우에 대비하고자 한다.

둘째, 우리의 편찬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된다고 해서 이로써 모든 면에서 만족할 만

한 사전이 만들어지지 않는 못하리라는 점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이나, 연구원이 이 사업에 부여하고 있는 의의 가운데 하나는 이 사전의 편찬 작업 과정 자체에도 있다. 여기서 얻어질 지식과 경험, 그리고 우리 나라 언어 현실에 대한 정밀한 분석들은 차후의 언어 정책 수립과 추진에 긴요한 자료로 쓰이게 될 것이다. 연구원은 우리 나라의 어문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 앞으로 이 자료들을 매우 소중하게 다룰 것이다. 그리고 민간 단체나 개인 연구자에게도 이 자료들을 지금보다는 더욱 폭넓게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가 이 사전 편찬에 학계의 역량을 총동원하고자 하는 근본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겠기 때문이다.